

21세기 한국 건축문화를 이끄는 전문가 집단

공간그룹(Space Group)은 1960년에 창립된 이래 4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한국의 건축문화와 예술진흥을 위한 활동에 전력해 왔다. 그동안 법원청사, 88올림픽 주경기장, 부산 아시아드 종합운동장, 광주월드컵 경기장, 경기도립박물관, 용인복합청사, 일산문화센터, 서울중앙우체국 등 1천여 점에 이르는 건축설계 및 감리를 훌륭히 수행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집단으로 널리 인정받아 왔으며, 그 업무 폭도 점차 넓혀 감으로써 설계는 물론 CM(Construction Management), 감리, 개발사업, 출판 등 종합 서비스를 이룰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사회에 기여해 오고 있다.

문화전반의 커뮤니케이션 중추

공간사옥

1971년 사옥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건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공간사옥의 개관에 이어 1997년 공간 신사옥 준공

해외사업

1975년 이란 테헤란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전개된 공간의 해외업무 또한 해외건설면허 획득, 뉴욕지사 설립, 해외사업팀 및 해외설계팀의 구성으로 탄탄한 사업전개를 추진

출판

1966년 종합예술 월간지 "SPACE"를 창간하였고, 2001년에는 SPACE지의 창간 40호 출간과 더불어 인터넷 웹진으로 Vmspace.com을 창립

감리

1990년 감리전문회사 등록, 1997년 종합감리 전문회사로 등록되어 고양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용인여성회관, 안산 원곡 주공1단지,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송도테크노벤처빌딩, 등 수 많은 감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

공간만의 전문적인 CM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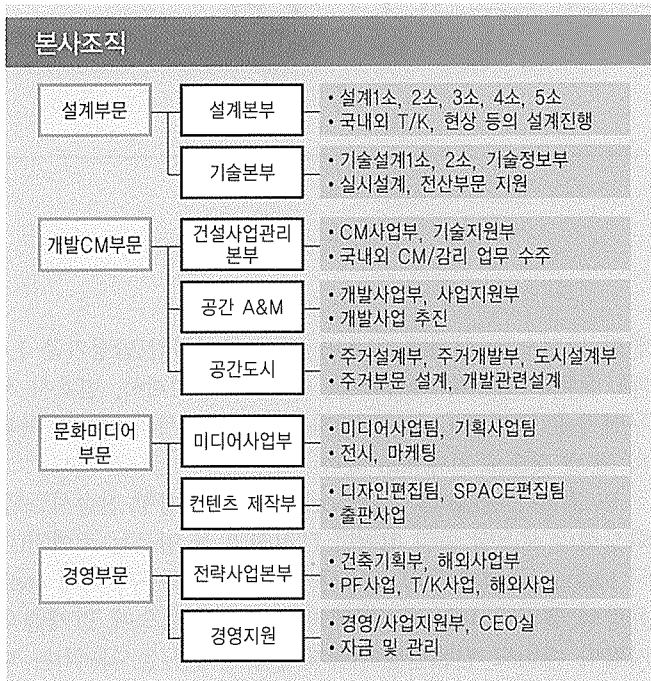
공간건축의 CM은 발주자에게 이익을 주는 Total Service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간 CM은 발주자를 대신하여

기획, 설계자 선정, 설계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시공사 선정 및 유지관리까지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을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주어진 예산과 시간 내에서 최상의 건축물을 완성하여 품질향상과 사업비절감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선진 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사조직의 설계본부와 기술본부, 건설사업관리본부 및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상호보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공간 A&M을 통한 민간공사부분의 시행사로서의 사업영역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5년 공간건축은 효율적인 CM업무수행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기존의 사업기획팀과 감리팀을 통합한 건설사업관리본부를 신설하여, 개발형 CM 및 기존의 공공 CM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CM분야에 있어서는 영주신제조창, 전주실내수영장,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대치동 문화복지회관 등의 공공 공사 및 삼성호텔, 상암동 전자회관, 장충교회 등 다수의 민간 CM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설계사무소로서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의 건설사업 초기의 기획, 설계단계에서 설계사무소의 장점을 살린 『공간』만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설계조직을 CM업무 수행 시 활용하여 공간 CM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전자회관건립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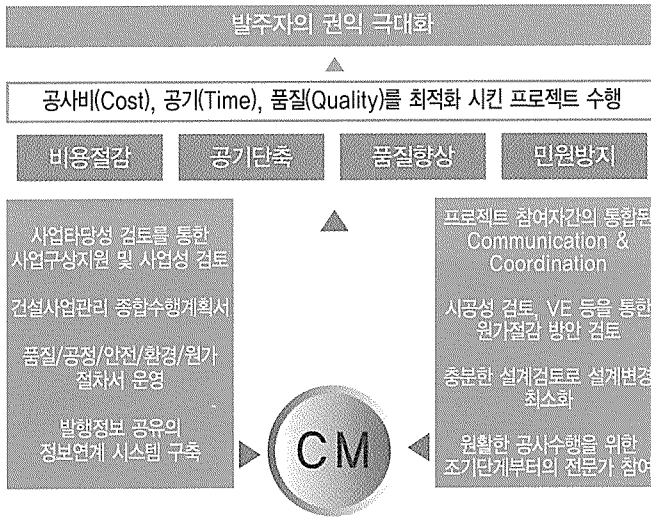
공간건축은 2004년 상암택지개발지구 DMC(Digital Media City) B6-3지구에 "DMC 전자회관" 건립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수주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DMC 전자회관의 건립목적은 전자회관 건립을 통하여 전자분야의 성장을 위한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여 전자업계의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자산업 관련단체의 직접화를 통한 상호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업계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Synergy효과를 창출하여 한국 전자산업의 구심체 역할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CM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비용절감 및 공기단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건설사업관리 인력을 공사 초기단계에 참여하도록 하여 발주기관의 부족한 기술인력 및 기능을 보완하고, 건축주가 요구하는 설계도 작성의 유도, 전문적인 건설계약관리를 통한 클레임 발생 최소화 그리고 건설공사의 전반에 걸친 CM의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투입시켜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 설계검토, VE수행, 타당성조사 등 기획단계부터 지속적인 CM업무 수행을 요구한다. 이는, 설계에 대한 품질을 CM이 감독하고, 높은 수준을 가진 시공자를 선택하려는 발주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초기단계의 CM업무 중요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은 설계 및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본사조직의 활용 및 그 동안의 경험과 Know-How를 토대로 발주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Pre-Design CM 서비스

공간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외에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전단계의 업무를지원하는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통부의 서울 국제 우체국 설계시공일괄 입찰안내서와 IT콤플렉스 입찰안내서 등의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였고, 영광종합체육시설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 장월지구 근린생활시설 타당성조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등의 용역을 수행하여 실제 발주자들이 필요로 하고 CM의 역할이 가장 중요시되는 설계전단계(Pre Design)의 용역 서비스에 주안점을 두어, 감리를 기반으로 하는 타 CM전문회사와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관리 업무

공간건축은 CM 뿐만 아니라 설계 및 감리분야에 대해 인력 및 기술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CM 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발주자에게 적극 다가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안형 CM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우수설계 조직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에 관심을 기울여 연면적 17만여 평에 달하는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터 PF사업에 설계 및 감리자로 선정되어 업무진행을 하고 있다.

공간그룹은 그동안 받아온 사랑을 발판으로 삼아, 문화가 중심을 이루는 21세기와 더불어 한국건축문화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세계유수의 전문집단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건축 및 문화예술을 이끄는 시대정신을 나누는 전문가집단으로서의 공간그룹을 이루어갈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문의: 02-763-0771)

전자회관 건립은 전자업계의 중심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공간건축은 전자회관 CM업무 수행을 통하여 전자업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추후의 전자업계의 CM사업 발주시 발빠르게 대응하여 발주자의 의도를 충실히 파악하고 공간 CM의 장점이 부각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발주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최근의 CM발주형태를 분석해 보면 기획단계부터 CM을

[출처: 사업기획팀 부장 박기희]